

善惡-倫理學的 研究(六)

韓稚振

六

勿論 以上の 이론은 理論上 反對할 수 업는 것이다. 그러나 實際上으로 엇더한 一種의 行爲가 最上的 善을 爲하는 것이 될는지 그 行動의 結果를 자세히 打算하기는 不能하나 巡警이 亂暴者를 殺人하는 一般 行動이 分明히 그 社會의 秩序를 維持케 해야 幸福되게 할는지 判定하기 어렵다. 사람의 行動이란 것은 여러 가지의 動機와 原因으로 因하여 起하는 것임으로 그 多種多樣的 動機와 原因을 調査해야 알기는 사람으로서 不能이다. 이는 物質的 科學에서 一個 運動의 影響을 絶對적으로 細密히 說明치 못하고 大體的 影響만 解釋하는 것이니 그는 그 影響이 限定업시 繼續的인 까닭이다. 이와 같은 道德學에서도 엇던 一種의 行動의 影響은 細密히 다 調査할 수 업고, 다만 普通的 傾向만 定하여 道德的 價値를 判斷하는 것이다. 이 普通的 調査를 信仰하면 特殊的의 外件도 認定하여 善惡을 斟酌하는 事이다. 이래서 우리는 엇더한의 外件이 善한 結果를 産하는 事도 種種 目睹할 수 잇는 바 이것을 그저 信任할 수는 有하나 證明할 수는 無한 것이다. 同一히 엇던 이는 革命은 惡結果를 産한다 해야 否認하는 이도 잇스나, 그러나 그 惡結果라는 것을 分明히 打算하고 主張할 것은 못된다. 동시에 革命이 有效한 結果를 産한다 하는 主張도 一種 斟酌에 不過하고 細密히 證明한 事實은 못된다.

그러나 過去에 人類 歷史를 溯考하면 目的이 手段을 正當케 한다는 句語를 그대로 밋고 實行하여 왔다. 政治家는 自己의 國家 興亡을 爲하여서는 무슨 手段 方法이든지 使用하여도 無關이라 하엿스며, 宗教家는 自己 宗教의 勢力 擴張을 爲하여서는 別 手段을 다 使用한 것은 事實이다. 지난 歐洲 大戰時 獨逸은 自己의 文明國是를 保存함에는 如何한 方法으로든지 敵國을 討滅하는 것이 참 道德이라 하엿스며, 聯合國側에서도 所謂 人道正義이니하는 標榜으로 別 手段을 다 運用하여 勝戰하엿다. 이래서 어디서든지 目的이 手

段을 正當化한 것이다. 勿論 如此한 判斷은 엇더한 程度까지는 不免할 것이다. 그러나 그 判斷은 絶對적으로 事實에 根據했다는 것은 誤解이다. 오직 이것들은 信念이 判斷할 問題들이다.

目的的 道德學의 理論을 特別히 反對하는 主張이 잇는데 그에 依하면, 비록 엇던 行動의 結果는 아조 보잘 것 업는 것이로되 거기에 接件하는 道德的 感情이 偉大한 것이 잇스즉 그것을 엇더케 結果만으로써 說明할 수 잇을까 하는 그것이다. 이래서 道德律의 犯을 結果만으로 피하라는 우리의 主張은 如此한 道德的 感情을 說明하지 못할 썬더러 그 感念 더 沒殺한다는 反對가 그것이다. 이것을 例하야 示하면 엇던 李哥의 子가 自己 父가 餓死할 地境에 處한 것을 보고 隣近人의 田中에 入하야 甘瓜 數箇를 盜賊하야다가 父에게 준즉 그 父는 自己의 子의 不正한 行動을 見하고 도리어 餓死의 苦痛 以上으로 不平의 感情이 起하야, 마춤내 그 子로 하여금 그 隣家에 차저 가서 自服後 赦罪를 得하기까지는 그 不平한 感情이 消치 아니하엿다 하는 實例이다. 이러한 事實을 두고 判斷할 時에 그 小子의 數介 瓜 竊取의 影響으로 말하면 甚히 小한바 그 竊取로 因하야 瓜主人의 富가 顯著히 被害됨이 업겟고 싸라서 財產所有制度를 破한다고도 할 수 업슬 것이다.